

만나고 싶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6대 김성이 회장 -

앞으로 3년의 시간,
10년 후 복지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역량강화 · 조직개혁 등을 통한 힘 있는 협회상 제시

취재기사이사: 서지원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사진: 김희현 (프리랜서)

보 이다가오는 싱그러운 초봄, 인터뷰를 위해 정말 오랜만에 캠퍼스를 찾아갔다.

Q 젊고 웃음 가득한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자연스럽게 필자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다.

오늘 인터뷰는 필자 역시 사회복지사라 더더욱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분이였다. 바로 지난 2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6대 회장으로 당당히 당선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4명의 후보 중 최종 당선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정부조직개편·복지예산지방이양 등의 위기 속에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 선거운동 기간 내내 힘(Power)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김성이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협회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복지는 국민의 선택, 한사협 회장직은 사회복지사들의 선택

선거기간동안 사회복지계의 현실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고자 노력

인터뷰를 시작하며 이번 선거의 전반적 분위기에 대해 물어보자 김 회장은 사회복지계가 위기에 봉착한 시점에서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서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좋았다는 이야기부터 하였다.

“복지도 국민이 선택하는 권리인 것처럼 협회 회장은 몇몇이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 역시 사회복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발전했고 그래서 더 치열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위기감과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후보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 회장이 보여준 그만의 차별성에 대해 물어보자 “선거기간을 통해 사회복지계의 위기를 확실히 알렸던 것, 그것이 다른 후보와 다른 저만의 차별적인 모습이었다 같습니다. 밖으로는 정부조직의 개편, 복지에 산의 지방이양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내적으로는 많은 대학에서 한해 15,000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라 취업과 현장의 질적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부각 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이고, 합심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했고, 많은 분들이 저를 선정했다고 봅니다.”

셀프 임파워먼트(Self-Empowerment)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힘(Power) 필요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한 점도 있지만 후보들이 직접 여러지역을 돌며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다.

“선거기간동안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도 정견 발표 때의 일인데요, 4명의 후보를 한 자리에 불러 각 후보마다 30분씩 질의시간을 가진것이 기억납니다. 지방협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에 새삼 놀라고 민주적인 선거운영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 한 대의원이 ‘제주도 학생들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꼭 육지에 가서 봐야하느냐’고 하더군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이면서도 예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려움에 배려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시정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김 회장의 선거 컨셉은 POWER 였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자

“최근 사회복지의 화두는 자활력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힘을 불어 넣어줘야 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파워를 강조했어요. 셀프 임파워먼트(Self-Empowerment),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가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위한 전문성(Profession),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 갈수 있는 기회(Opportunity)확대, 사회복지사 자신의 사회복지(Self-Welfare)와 사회참여를 통한 역량강화(Empowerment),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협회의 개혁(Reform)입니다.”

이번 선거의 공통적인 정책 중 가장 최우선이었던 것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이었는데 “현장 사회복지사들

의 처우, 그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낮은 처우 개선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낮은 봉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 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하고 불합리한 인사문제 등으로 오는 갈등문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협회도 변화해야

회원 관리도 시스템 운영

협회는 이제 바뀌어야 하고 움직임도 활발해야 한다며, 협회가 사회복지사의 고민을 대변하고 지방협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김 회장.

“협회는 협회 스스로의 쇄신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도록 노력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협회장들과 정례 모임 등을 통해 전국을 조직화, 현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개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협회와 대의원들을 묶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선결과제입니다. 협회는 조정자 역할을 맡고, 모든 일은 회원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해 갈 것입니다.” 사회복지 발전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자금을 쌓아놓지 않고 전국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곳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취업정보 제공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신교육 및 정보전달에 노력하고, 1:1 대화가 되는 회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회원 관리가 되도록 협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에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모아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으로 처우개선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국민인식과 한 바퀴입니다. 국민들이 「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회복지사는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복지대상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에 맞는 보호대상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초점이 없어요. 따라서 구심력이 상실되어 힘이 분산되는 거죠. 하나의 중심과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심력을 찾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가족해체, 노인문제, 출산력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 강화를 통해서 다양화되는 가족형태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한사협은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국민인식이 향상되어야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함께 개선된다고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참여를 김 회장은 강조한다.

사회복지 활동 중 '사랑'이 가장 중요

열등 처우의 원칙에는 반대, 최고의 서비스 제공해야

사회복지 학계와 현장을 오가며 열심히 일해 온 김 회장. 어린이집 원장, 면목·이대·성산복지관 관장 등의 다양한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낀 것은 「사랑」이었다고 한다. “기억에 남는 일은 「파랑새 보금자리」 일을 할 때였습니다. IMF로 온 나라가 어려울 때 이대복지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때 11개 대학 13개 복지관을 모아 전국대학사회복지관 협회를 만들고 실직가정 아이들을 위한 파랑새 보금자리운동을 전개했어요. 최고의 교육프로그램과 멋진 여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의 원칙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하며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있어요. 열등상태의 클라이언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랑과 평등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실직가정 아이

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보호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려운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도 이론을 앞세우기 보다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결정을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성이 교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6대 회장으로 그리고 예비사회복지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로서, 또한 10만 여명 사회복지사의 대변자의 역할로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 “수업도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할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협회에 주력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듣고 본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사회과학의 학문인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사회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는 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은 개선점이 더 많기에 다양한 사람과 함께 일해 나가야 하구요”

선거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는 김성이 회장. 대의원들 한 표 한표의 소중함을 알듯이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도 알았으며, 3년을 잘 준비하면 10년 후에는 반드시 복지사회가 온다며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 내내 환한 웃음으로 촬영에 임해준 김성이 회장, 그러다가도 협회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질문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변을 해 주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계는 해야 할 일과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만큼 김성이 회장의 역할이 커지는 것인데,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동참하여 아름다운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